“음악으로 소통의 길 함께 걸을 것”

(사)향기로운문화동행 · 부산오페라聯 등 협약

지역소재 문화예술 발전
인재양성 신인발굴 주력
문화행사 공동기획 추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향기로운문화동행과 부산오페라연합회 협동조합 그리고 부산뮤지컬단 이 7월 13일 BOF아트홀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문화로 소통하고 동행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이 부산오페라연합회, 부산뮤지컬단과 협약식을 진행했다. 세 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 예술을 위한 사업을 기획 발굴하고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사)향기로운문화동행(이사장 보혜)과 부산오페라연합회 협동조합(대표 윤장미) 그리고 부산뮤지컬단(단장 김지현)이 7월 13일 BOF아트홀에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 단체는 지역을 소재로 한 문화 예술 관련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역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뿐 아니라 지역 특색을 연구해 새로운 문화 방향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단체의 문화, 예술 연구 인력을 교류하고 예술인 양성에 노력을 기울인다. 세 단체는 무엇보다 지역의 축제와 공연 등 문화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사장 보혜 스님은 “문화를 위한 우리의 협력은 코로나로 인해 지친 모든 이들에게 힐링을 선사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아름다운 문화는 종교가 달라도 함께 미소 짓게 하고 국가와 이념을 넘어서게 하는 힘이 있다. 문화를 통해 참된 동행의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향기로운문화동행은 차(茶) 문화를 중심으로 예술문화 활동을 펼치는 단체다. 기장차문화대학에서 인문학 강좌를 개설해 차를 통해 각 분야의 문화예술인들과 동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교류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부산기장국제차문화축제’ 와 ‘동행달빛음악제’ 를 열어 한 · 중 · 일 · 인도와 차문화를 교류하고 문화행사를 주도하고 있다. 또, 가야문화발전을 위해 허황후를 기리는 헌다례를 주관, 허황옥차인상, 수로문화상, 차성문학상을 시상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부산오페라연합회 협동조합은 2014년 부산지역 오페라 관련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 원활한 작품 제작과 지역 공연 활성화를 위해 창립된 단체이다. 부산 원도심의 문화 · 예술 부흥과 예술로 도시로 만들고자 원도심인 부산 중구 대청로로 이전했다. 2018년 12월 1일 부산오페라연합회(협동조합 특수법인)로 재발족해 공연예술문화 사업 및 전문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소외계층의 예술문화 향유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대표인 윤장미 소프라노는 대한민국 오페라 대상에서 특별상과 러시아 옴스크 문화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유럽에서 예술경영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로 지역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윤장미 대표는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계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함께하고 소통하고 문화 예술 발전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부산뮤지컬단은 다양한 계층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창작 공연제작에 앞장서며 지역 신인 예술가의 무대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특히 예술 영재 발굴과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지현 부산뮤지컬단 대표는 창작뮤지컬 제작과 팝페라 가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부산국제뮤지컬콩쿨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부산시민 뮤지컬단과 부산주니어 뮤지컬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제1회 부산 어린이 · 청소년 뮤지컬페스티벌’ 을 기획하고 있다.

김지현 대표는 “음악을 사랑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미래 인재들을 위해 다함께 노력할 때이다”며 “이번 협약은 미래 예술인들의 밝은 길을 열어 주는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경없는민들레 코로나19 산소기금 모금

총 1억여 원 모아 네팔 등 도와

정토마을 해외 의료봉사기구인 국경없는민들레가 코로나19 치료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위해 긴급 지원 모금을 실시한 결과 1억 246만 원이 모연됐다.

울산 정토마을(이사장 능행) 국경없는민들레는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네팔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 산소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펼쳐 7월 8일 기준 총 1억 246만 원이 모금되었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네팔, 스리랑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산소발생기, 의료용 산소통 구입 및 산소 충전비용을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국경없는민들레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과 정성으로 수없이 많은 이들이 고통을 덜고 생명을 건지며 희망의 빛을 찾게 되었다”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052)255-8588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밀양 재악산으로 이름 변경해야”

재악산 표지석바로세우기 운동 추진위 창립


밀양 재악산 산이름(표지석)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위원회는 7월 13일 밀양시청 대강당 2층에서 ‘재악산 산이름(표지석)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표충사는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받드는 곳입니다. 표충사가 재악산의 이름을 지키지 못하고 일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습니다.”

밀양 재악산 산이름(표지석)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위원회는 7월 13일 밀양시청 대강당 2층에서 ‘재악산 산이름(표지석)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창립총회에는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 용궁사 정무 스님, 박일호 밀양시장, 황걸연 밀양시의회의장, 엄수면 추진위원회부의장, 예상원 경남도의원, 박필호 시의원 외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말양 재악산은 1923년 일본이 천황산으로, 수미봉을 재약산으로 지명을 변경하며 불리게 됐다. 밀양시와 관계 향토사학자들은 꾸준히 지명 변경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국가지명위원회를 통과 못해 현재 일본의 잔재인 천황산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표충사 주지 진각 스님은 “표충사는 2017년 산문 현판에 재악산 표충사로 표기하고 있다”며 “민족의 정기를 억누르는 이름 바꾸기 운동은 사명대사의 혼을 되살리고 자존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표충사와 사부대중은 모두 함께 동참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시민 위한 산사문화재 활용사업

거제 신광사, ‘석불의 미소’ 개막식 진행

2021산사문화재 활용사업
불교문화 체험의 기회제공
4가지 무료 프로그램 선뵈
상생형 관광자원으로 평가



신광사는 7월10일 대웅전에서 2021년 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석불의 미소’ 개막식을 개최했다.

거제 신광사에서 시민들을 위한 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이 진행됐다. 신광사는 이를 계기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문화 힐링 사찰로 거듭난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광사(주지 선안)는 7월 10일 경내 대웅전에서 2021년 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석불의 미소’ 개막식을 개최했다.

‘석불의 미소’는 문화재청과 거제시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문화행사다. 불교뿐 아니라 인문, 예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막식에는 주지 선안 스님과 거제사암연합회 회장 선암 스님을 비롯해 변광용 거제시장, 서일준 국회의원, 옥은숙 경남도의회 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는 주지 선안 스님의 인사말을 비롯해 내빈들의 축사 및 행사내용을 설명하는 영상 시청 등으로 진행됐다.

주지 선안 스님은 “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산사가 고유한 문화재를 이용해 고품격 산사문화 체험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마련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함께 노력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 앞으로 신광사는 거제불교의 중심에 서서 불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거제사암연합회 회장 선암 스님은 “힐링이란 단어가 익숙해질 만큼 현대인은 많이 지치고 고되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치유할 것이 없는 삶이며 이대로 완성되어 있는 인생이다”며 “신광사가 현대인에게 참된 가르침을 주는 시작점이자 종착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광용 거제 시장은 “영상을 통해 신광사의 원대한 계획을 들었다. 주지 스님 이하 대중들의 원력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지역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신광사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나를 찾아가는 힐링명상 -삶’ 이란 주제로 선암 스님이 생활명상을 지도했다.

선암 스님은 “특정한 명상법을 따로 익히고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생활과 삶이 명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사)생명나눔실천 부산 생명존중 강좌 개최

7월 22일, 부산 영광도서에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는 7월 22일 오후 1시 서면 영광도서 10층 문화홀에서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 강좌’ 를 개최한다.

강의 주제는 숭고한 마음 생명존중(장기기증의 필요성)과 장기 · 인체조직기증방법(뇌사자 판정 및 기증진행과정)이다. 강사는 박동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사무국장과 복춘희 한국장기조직기증원 前 영남지부장이 담당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수강자 전원에게 수료증 및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맞춰 230석 공간에 80여 명의 수강자만 사전접수를 받아 진행된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창립 15주년을 기념하며, 생명나눔과 생명존중을 실천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했다”며 “장기기증희망등록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051)853-042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